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56호 현대불교
2009년 11월 4일(음 9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법회에 오시면 항상 자리가 불편해서 좌송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도 모자라는 점이 많겠지만 양해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날까지 법회를 해왔는데 여러분이 실천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서 용범으로써, 어떻게 해야하냐 대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악과 선을 대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냐 오늘 그대도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내가 설법을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뛰어봐야 뛰는 그 길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해 드렸는데 이날까지 해오면서 어떠한 것이 좀 불안하다든가 아리송하다든가 그러한 문제 등등을 가지고 나오신다면 자세히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급한 게 나로부터니까요. 나로부터 내가정, 사회, 우주 모두니까요.

내가 먼저 말을 해놓으면 거기에 위축이 돼서 질문할 것도 없어지거든요.

질문자1(남): 저는 한마을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동안 주인공을 찾고자 했습니다만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허공만 맴돌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법어집 내용 중에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나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꼭 퇴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을 북돋을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군더더기 하나 불을 지르자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법문을 읽고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을 찾는 데 시간이 길고 짧음이 없고 들고 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중생이 짧음에 역점을 두어 조금만 마음이 생기고 역경보다는 순경, 다시 말해서 내 안위와 물질적인 세계에만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찾다보니 제 마음 속에 있는 주인공이 '애라, 옛먹어라.' 하는 것 같아서 저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법회에 참가한 또 다른 이유는 큰스님의 모습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제 주인공하고 큰스님의 주인공이 틀이 아닌 한마을이라 하여 오늘 큰스님의 주인공을 훑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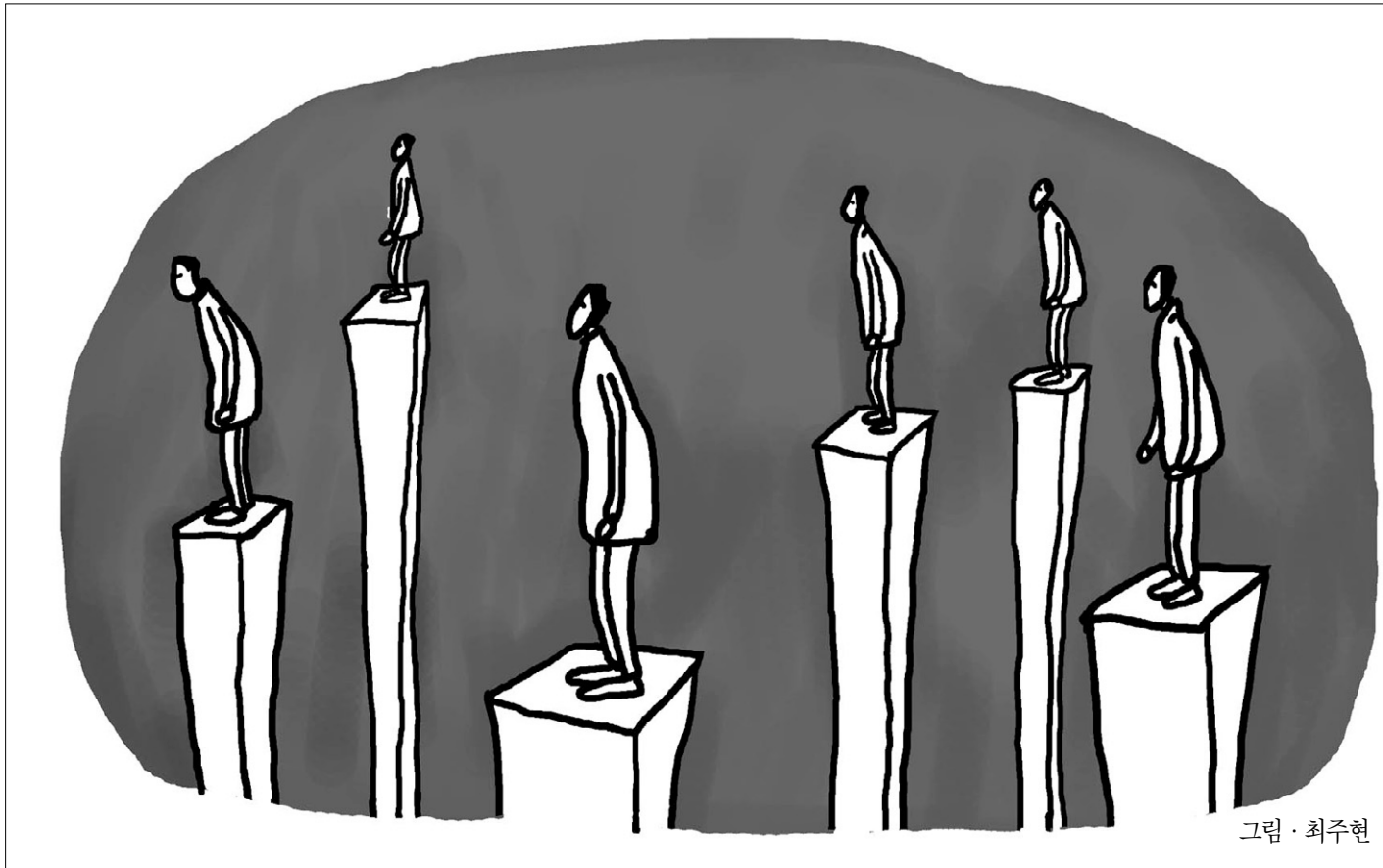


그림 · 최추원

고자 하옵니다. 제 것을 찾는 데 게으르면서 남의 것만 탐하는 이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큰스님의 크나큰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계와 정신계가 틀이 아니게 통해야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또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간략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정신계 물질계가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가는 시대니까요. 지금 악이다 하면 악도 천차만별입니다. 선도 천차만별이고요.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차원이 주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악과 선이다 하는 가운데 악도 내버리고 선도 내버리고 그냥 지금 가운데 서서 나가는 길이 아닙니까? 지금 가운데 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운데 서서 나가다 보면 악도 보이고 선도 보이고 선도 하게 되고 악도 하게 되는 거를 통틀어 거기다 놓고 보면 나도 공했느니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한 걸 알고 또 그 믿는 마음이 유독 생각이 나서 간절히 거기다 놓고 항상 그렇게 해나간다면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악이나 선이나 거기 다시 넘어 하고 악은 흡수해서 굴러서 넘어 하고 그래야 열린 쉽게 말해서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틀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하나로 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 그러지만 생각이 없다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만법을 자기가 하고 자기 인편을 잘 다스리고 나간다면 거기에 성과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기는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저렇게 했으니, 그것이 거기에서 다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2(남): 저는 요즘 현실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엉망이고요.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이 나라를 좀 건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렇고,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도 없이 나왔습니다.

큰스님: 나라 일이 걱정되십니까?

질문자2(남): 예.

큰스님: 올해 특별히 그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근본이 일체 만물 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몸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면 남한테 유난히 저주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것이, 이 우주 대천세계에뿐만 아니라 지구 하나도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하신다면 우주의 주인이 되고 또 주인이 이끌고 결정을 해서 지구의 심부름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시면서 느끼는 대로 깊이 안으로 하십시오. 잘못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어떻

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걸 알아야 하고 지금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국민이 편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말입니다. 어저께도 과거니까 과거로부터 해나온 걸 보면 현재에 그 도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돌아가건 한 번 생각해서 마음을 깊은 속에서 내십시오. 그럼으로써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3(남):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이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셋째주 법회 들으려고 올라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험에 대해서 참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고3법회를 했는데 거기서 스님께서 '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나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시험도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과로 생각이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제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치룰 수 있게 그렇게 마음 내주시길 바라고 여기 썼습니다. 마음 내주십시오.

큰스님: 마음을 제삼자에게 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다 통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달라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내진다는 말이예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고정됨이 없이 바로 화해서 찰나찰나 나누는 까닭에 공했다 말입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질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엇이

26면으로 계속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 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시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장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재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재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고혼 애혼각 열위열명영가를 극락세계 상품상생계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입재법문 :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 2010년 1월 18일(음 12.4) 오재 :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 2010년 9월 20일(음 8.13)
삼재 :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 2010년 11월 8일(음 10.3)

접수문의 :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관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구 / 수석교문 이필상



• 기도비 : 49재마다 7만원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 봉행 오후 3시 시작)
•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조상님의 위패를 영단에 봉안하여 기도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임원공고

종 정 정화 총무원장 혜 봉

| | | | | | | | |
|-------|----|------|----|-------|----|-------|----|
| 원로원장 | 구담 | 원로위원 | 덕운 | 비구니원장 | 아산 | 비구니위원 | 자인 |
| 교육부원장 | 월암 | 사정원장 | 법안 | 사회부장 | 혜통 | 규정부장 | 호산 |
| 총무부장 | 법륜 | 문화부장 | 근홍 | 감찰부장 | 봉정 | 호법부장 | 혜원 |
| 포교부장 | 법보 | 홍보부장 | 능현 | 감찰국장 | 벽송 | 포교국장 | 원공 |
| 문화국장 | 법봉 | 호법국장 | 현오 | 교임단장 | 도건 | | |
| 홍보국장 | 정오 | 기획국장 | 도경 | | | | |

| | | | | | |
|------------|----|------------|----|-----------|----|
| 제10교구총무원장 | 해광 | 제6교구동부총무원장 | 운오 | 제3교구총무원장 | 상원 |
| 제28교구총무원장 | 지광 | 제26교구총무원장 | 묘진 | 제13교구총무원장 | 지광 |
| 제6교구서부총무원장 | 지웅 | | | | |

종도회원 선허 법산 적광 보현 명광 법광 해담 도광

포교원 인덕화 연화행 혜명심 교임단장포교원 대법행

법사

보광 향원 자비행 보광 염상 도일 대운 정법 능오 성문 백상 백연하

종도일동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